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선율의
미학

aesthetics on the melody

KBS교향악단 제794회 정기연주회

지휘 | 성시연 Shiyeon Sung

피아노 | 파질 세이 Fazil Say

주최/주관 KBS 교향악단

후원 KDB산업은행 | 더클래스효성

2023.09.19. (TUE)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Etiquette

공연 관람 에티켓 5계명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 1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 2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 주세요.
- 3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 주세요.
- 4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 5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aesthetics the



program

닐센 | 헬리오스 서곡, 작품17

C. Nielsen | Helios Overture, Op.17

🕒 12'

파질 세이 | 피아노 협주곡 '물', 작품45 *한국 초연

F. Say | 'Water(Su)' for piano and orchestra, Op.45 *Korean Premiere

🕒 26'

1악장 파란 물 : 흐르는 듯한(9')

Blue Water(Mavi Su): fließend

2악장 검은 물 : 느리게(10')

Black Water(Kara Su): Adagio

3악장 초록 물 : 빠르게(7')

Green Water(Yeşil Su): Allegro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베버 | 오베론 서곡, J.306

C. M. v. Weber | Oberon Overture, J.306

🕒 9'

힌데미트 | 화가 마티스 교향곡

P. Hindemith | Symphony: Mathis der Maler

🕒 25'

I. 천사의 음악회 (8')

Engelskonzert

II. 매장 (4')

Die Grablegung

III. 성 안토니오의 유혹 (13')

Versuchung des heiligen Antonius

지휘 | 성시연

지휘자 성시연은 2006년 게오르그 솔티 국제 지휘 콩쿠르 우승, 2007년 구스타프 말러 지휘 콩쿠르 1위 없는 2위 수상 이래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열정을 갖춘 지휘자로 자리매김하였다. 2007년 보스턴 심포니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지휘자로 임명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활동하였다. 2014년 경기필하모닉 예술단장 겸 상임지휘자로 임명, 4년의 임기 동안 악단의 역량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년 동 오케스트라의 유럽 투어를 이끌었고, 2017년 유럽의 권위 있는 음악 축제 '무지크페스트 베를린(Musikfest Berlin)'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아 연주하였으며,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 '데카(Decca)'에서 말러 교향곡 제5번 음반을 발매하기도 하였다. 2018년 오페라 <라보엠>으로 국립오페라단과의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이끌었고, 2019년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로 재초청받아 오페라 지휘자로서의 커리어도 쌓아가고 있으며, 서울시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단체들과 호흡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첫 수석 객원지휘자로 임명되었으며, 2021년 11월, 세계 최정상 교향악단인 네덜란드 로열 콘서트헤바우 관현악단(RCO)과의 성공적인 데뷔 공연에 이어, 2022년 7월에는 독일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데뷔 무대를 성황리에 마치며 세계 정상급 악단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미국 할리우드볼에서 LA 필하모닉과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협연으로 2023/24 시즌을 시작한 성시연은 다가오는 11월, 작년 데뷔 무대 직후 재초청으로 이어진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의 공연, 2024년 2월 영국 로열 필하모닉과의 공연을 앞두고 있으며, 디트로이트 심포니, 밴쿠버 심포니 등과의 데뷔 무대 또한 예정되어 있다.

2015년 제23회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2016년 제9회 공연예술경영상 '올해의 공연예술가상', 2017년 제11회 대원음악상 연주상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연주한 '윤이상 100주년 기념음악회'가 이데일리 문화대상 클래식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Shiyeon Sung
Conductor



Fazil Say
Pianist



피아노 | 파질 세이

파질 세이는 천상의 재능으로 25년간 한결같이 청중과 비평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피아니스트이다. 세이의 공연은 보다 직접적이고, 개방적이고, 흥미로우며 관객들의 마음에 바로 꽂히는 매력을 지녔다. 그의 첫 스승은 파리에서 알프레도 코르토를 사사한 미타트 펜멘이었다. 세이의 재능을 직감적으로 알아본 그는 세이에게 본격적으로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일상을 테마로 한 즉흥 연주를 먼저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유로운 창조 과정이 그의 어마어마한 즉흥 연주 실력과 뛰어난 심미안의 원천이 되어 오늘날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서의 그의 명성을 완성했다.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로베르트 슈만 음악대학에서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레빈을 사사한 그는 메나헴 프레슬러의 마스터클래스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였으며, 1994년 뉴욕에서 개최된 영 콘서트 아티스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미국과 다양한 유럽 지역의 오케스트라 및 유수의 지휘자들과 끊임없이 협연하며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를 비롯해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은 물론이고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들과 현대곡을 섭렵하며 레퍼토리의 저변을 넓혀갔으며, 직접 작곡하기도 하였다.

작곡가로서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WDR, 뮌헨 필하모닉,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음악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페스티벌, 빈 콘체르트 하우스, 드레스덴 필하모니, 루이비통 재단,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 보스턴 심포니, BBC 심포니 등 다수의 저명한 단체들의 의뢰를 받아 곡 작업을 하였고, 교향곡 5곡, 오라토리오 2곡을 비롯하여 다양한 협주곡과 수많은 피아노와 실내악곡을 작곡하였다.

실내악 활동 역시 활발히 하고 있는데, 바이올리니스트 파트리샤 코파친스카야와 수년간 환상의 듀오로 활약하고 있다. 그 밖에도 막심 베게로프, 미네티 콰르텟, 모딜리아니 콰르텟, 니콜라스 알트슈테트, 마리아누스 크레바사 등과도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도르트문트 콘체르트하우스,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프랑크푸르트 알테 오퍼, 빈 콘체르트하우스,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취리히 실내관현악단, 드레스덴 필하모니,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음악제 등의 수많은 콘서트홀, 오케스트라, 음악 페스티벌에서 상주 음악가로 초청된 바 있다. 2022/23 시즌에는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의 메인 아티스트이자 바이마르 슈타츠헤펠레의 상주 예술가 작곡가로 활동했다.



닐센 | 헬리오스 서곡, 작품17

C. Nielsen | Helios Overture, Op.17

작곡연도	1903년
초연	1903년 10월 8일, 덴마크 코펜하겐
편성	플루트3(제3주자는 피콜로 겸함),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3, 트롬본3, 튜바, 팀파니, 현5부
연주시간	약 12분

헬리오스 서곡은 1903년 1월 카를 닐센(1865~1931)이 아내와 함께 보낸 아테네의 휴가 중 작곡되었다. 닐센은 그리스의 태양신 이름인 헬리오스를 이 서곡에 붙였고, 악보에 "고요함과 어둠이 깔린 뒤, 태양이 환희와 기쁨의 노래와 함께 떠오른다"라고 묘사할만큼 그에게 영감을 준 태양을 시적으로 묘사했다.

곡의 시작은 첼로와 베이스의 긴 페달 포인트 위에 호른이 울려 퍼지는 고요한 안단테의 선율이다. 비올라에서 시작된 움직임을 제2바이올린이 이어받은 후, 목관과 호른 솔로가 더해진 제1바이올린의 멜로디로 이어진다. 멜로디는 점차 클라이맥스로 치달고, 4개의 호른이 진취적인 승리의 멜로디로 다시 등장한다. 제1바이올린과 플루트가 이끄는 선율이 현악기와 목관악기의 화음과 어우러지며, 곧 3개의 트럼펫이 팡파르로 등장해 다음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테마는 첼로 파트에서 시작해 플루트, 오보에, 제1바이올린, 오보에와 바순으로 순차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현의 피치카토와 목관이 하강진행으로 이어지고 점차적으로 등장하는 호른과 금관이 푸가의 시작을 이끌어낸다. 푸가가 끝나면 전체 오케스트라가 카덴차*를 연주하며 마치 해가 저물며 바다의 품에 안기는 듯한 낙조의 바닷가 풍경을 떠올리듯, 하강의 반음계 패시지가 이어진다.

이 곡은 낭만주의 시대 서곡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으며, 자연의 풍경을 음악으로 묘사하는 데 심취했던 북유럽 작곡가들의 경향과도 결을 같이 한다. 서정적인 오케스트레이션에 정교한 슬로로 역동성을 더해 후기 낭만주의 시대의 화성과 리듬을 충실히 사용하며, 곳곳에 반음계적 진행과 구조적으로 사용된 리듬이 적절한 긴장과 갈등을 자아낸다.

*카덴차(Cadenza): 곡이 마무리되는 부분 혹은 협주곡에서 독주 악기가 기교적인 역량을 펼치는 대목. 여기서는 전자를 의미한다.

파질 세이 | 피아노 협주곡 '물', 작품45 *한국 초연

F. Say | 'Water(Su)' for piano and orchestra, Op.45 *Korean Premiere

작곡연도 | 2012년

초 연 | 2013년 8월 18일, 독일 슈톨페

편 성

플루트, 피콜로, 베이스 플루트, 오보에2,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2(제2주자는 베이스 클라리넷 겸함), 바순2(제2주자는 콘트라바순 겸함),
호른4, 트럼펫3, 트롬본2, 튜바, 팀파니, 비브라폰, 테너드럼, 베이스드럼, 프로그,
실로폰, 해피드럼, Ufo드럼, 로그드럼, 클라베스, 비브라톤, 공가, 귀로, 쉘셰이커,
레인스틱, 우드블록, 마림바, 봉고, 윈드차임, 갈매기파이프, 비둘기파이프, 워터폰,
닥소폰, 트라이앵글, 탬버린, 바다파동, 하프, 첼레스타, 현5부

연주시간 | 약 26분

파질 세이(1970~)는 피아니스트로서 뛰어난 연주 경력 외에도 창의적인 작곡 활동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그의 독특한 음악 언어는 다양한 관심사와 튀르키예 출신으로서 경험한 다채로운 음악 스타일에 대한 이해가 더해져 완성되었다. 1984년 튀르키예 앙카라 국립음대 시절부터 솔로 피아노 소품을 작곡한 그는 이후 독일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 다양한 스타일과 장르를 시도하며 작곡가로서의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다. 파질 세이는 자신의 앙코르곡으로 널리 알려진 '알라 투르카(튀르키예 행진곡)'에서 알 수 있듯이 재즈에 깊이 매료되어 천착해왔다. 재즈 선율에 튀르키예 민속 음악을 섬세하게 결합해 고전적인 문법 안에서 자유롭고도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며 특유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자신만의 트레이드 마크로 정립했으며, 피아니스트로서의 정체성에 걸맞게 피아노 작품들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다.

오늘 연주되는 피아노 협주곡 '물'은 개별 악장들의 제목에서 이미 알 수 있듯, 1부 '푸른 물'은 바다, 2부 '검은 물'은 밤과 호수, 3부 '녹색 물'은 강을 테마로 삼고 있다.

푸른 물

드넓고 무한한 바다의 푸른 색채와 머나먼 수평선의 풍경을 명상적으로 묘사한 곡이다. 푸르게 밀려왔다 하얗게 부서지며 사라지는 밀물과 썰물, 이국적인 음향, 한없이 뻗어나가는 바다와 하늘의 순수한 풍경을 바라보며 느끼는 소박한 기쁨 등 인력의 작용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바다의 경쾌한 움직임에 기반한 노래들을 통해 인간이 느끼는 감동과 황홀함을 묘사한 경쾌하고도 즐거운 분위기가 돋보인다.

검은 물

작은 호수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풍경과 사건을 담아낸 곡이다. 모든 사건은 어두운 밤에 일어난다. 잔잔한 호수, 고요함, 휘영청한 달과 흐르는 달빛을 묘사하던 중 개구리나 이름 모를 새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 다소 기괴한 소리를 내는 닥소폰과 각종 타악기들이 신비로움과 놀라움을 더한다. 중간 부분의 빠른 빠시지는 환상동화 속 요정의 춤 장면을 연상케 한다.

초록 물

음표로 색채를 구현하면 이러한 풍경일까.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악상이 강물의 무한한 흐름을 닮아있다. 끝없이 흘러가 어딘가로 가 닿는 초록빛 물을 바라보며 '강은 언제나 같은 강이지만 물은 결코 같은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고대 그리스의 '어두운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이 떠오를 수도 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사용하는 비브라톤*은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진동음처럼 들린다. 이 부분의 마지막에 이르러, 단원들은 각자의 언어로 다음과 같은 말을 속삭인다: 물은 생명의 기원이다. 생명은 물에서 비롯되고 결국 물로 돌아간다.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한다. 생명은 물에서 비롯된다.

*비브라톤(Vibratone): 구멍이 뚫린 파이프를 두드려 공명을 만들어내는 타악기

베버 | 오베론 서곡, J.306

C. M. v. Weber | Oberon Overture, J.306

작곡연도	1825-1826년
초연	1826년 4월 12일, 영국 런던
편성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2, 트롬본3, 팀파니, 현5부
연주시간	약 9분

작곡가 카를 마리아 폰 베버(1786~1826)는 낭만주의 시대, 오케스트라 음악의 진화에 있어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선구자 중 한 명이었다. '오베론 서곡'은 1826년에 작곡된 곡으로, 2막은 독일에서, 3막은 영국에서 완성되었다. 원작은 <Huon de Bordeaux>라는 제목의 프랑스 소설 모음집에 실려 있다.

왕비 티타니아와 다톤 요정의 왕 오베론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한 쌍의 연인을 찾을 때까지 결코 화해하지 않기로 한다. 이에 오베론의 명을 받은 요정 짝은 두 연인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빈다. 보르도의 젊은 기사 후온과 바그다드 칼리프의 딸 레이자가 바로 그 연인으로, 갖은 시련과 유혹을 통과하며 변함없는 이들의 사랑이 오페라의 줄거리를 이룬다. 이 서곡은 요정들을 소환하는 오베론의 마법의 나팔소리와 요정 음악의 아다지오 소스테누토*로 시작된다. 플루트로 구현되는 몇 개의 음표가 요정 합창의 짧은 구절로 이어지며, 이후 행진곡 테마에 맞춰 영웅이 소개된다. 요정 음악은 전체 오케스트라의 포르티시모가 알레그로로 이어질 때까지 계속되며, 그 주제는 오페라 속 4중주 '질고 푸른 물 위로'를 차용한 것이다. 호른에 이어 클라리넷이 후온 경의 테마를 들려주고, 레이자의 웅장한 장면 '바다여, 그대 막강한 괴물'의 한 구절, 짝의 정령들이 부르는 합창을 미리 들려준다. 서곡은 격렬하고 화려하게 마무리되며, 베버의 정교한 오케스트레이션과 판타지적 서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 주목할 만한 조합을 보여준다.

서곡을 여는 호른의 세 음은 마치 마법처럼 울려 퍼지는데, 이것은 위기에 빠진 주인공 후온 경을 구출하기 위해 오베론에게 보내는 마법 뿔피리 소리를 상징한다. 호른의 독주와 이를 뒷받침하는 악음기를 낀 현악기, 무지개처럼 찬란히 빛나는 플루트와 클라리넷 등 오베론의 요정 세계와 관련된 모든 소리가 이에 응답한다.

멀리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팡파르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연주되어야 하며, 오케스트라의 총주가 후온 경의 모험을 걱정의 알레그로로 그려낸다. 돌진하는 바이올린은 두 연인이 결국 승리해 탈출에 성공할 것을 예고하며, 호른 소리는 오베론의 개입을 암시하고, 서정적인 클라리넷이 사랑의 멜로디를 속삭인다. 레이자의 아리아를 바탕으로 서곡만으로도 오페라 전막이 펼쳐지는 듯한 풍성한 경험을 선사한다.

*아다지오 소스테누토(Adagio Sostenuto): 음 하나하나를 충분히 눌러 무겁고 느리게 연주

힌데미트 | 화가 마티스 교향곡

P. Hindemith | Symphony : Mathis der Maler

작곡연도	1933-1934년
초연	1934년 3월 12일, 독일 베를린
편성	플루트(제2주자는 피콜로 겸함),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2, 트롬본3, 튜바, 팀파니, 베이스드럼, 스네어드럼, 트라이앵글, 심벌즈, 서스펜디드 심벌, 글로켄슈필, 현5부
연주시간	약 25분

‘화가 마티스’ 교향곡은 파울 힌데미트(1895~1963) 본인이 작곡한 동명의 오페라를 기반으로 한다. 농민 전쟁 속에서 ‘이젠하임 제단화’를 완성한 16세기 르네상스 화가 마티아스 그뤼네발트의 이야기를 다룬 오페라 <화가 마티스>를 발표하기에 앞서 일부 음악을 발췌 및 편집하여 총 3악장 구성의 교향곡으로 먼저 공개한 것이다.

힌데미트는 초기에 다른 이야기를 구상했으나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마티아스 그뤼네발트의 삶과 투쟁으로 초점을 옮겼다. 힌데미트의 아내와 처남은 유대인이었고, 나치는 유대인과 그들과 관련된 모두를 억압했다. 정권의 위협과 압박으로 역경에 직면한 힌데미트가 경험한 예술적, 도덕적 딜레마와도 유사한 지점이 많다. 히틀러 정권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힌데미트는 거대한 악에 맞선 예술가의 개인적인 투쟁을 묘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마티아스 그뤼네발트라는 인물은 힌데미트의 삶과 예술적, 도덕적, 사회적 완전성을 화해시키려는 그의 시도를 대변하게 되었다.

그뤼네발트는 농민 전쟁(1524-1525) 당시 농민들의 반란을 돕기 위해 예술을 포기하지만, 반란에 환멸을 느끼면서 자신의 주요 소명인 예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후 환상을 통해 자신의 예술을 되찾는다. 예술가의 책임은 우선 예술 자체에 있으며, 예술가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의무는 자신을 돌보며 예술을 지속해 나가는 것으로 충족된다는 내용이다.

힌데미트가 그뤼네발트의 캐릭터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었는지는 1938년 취리히 오페라 초연에서 그가 남긴 말로도 알 수 있다.

“그뤼네발트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완벽함과 예술성에 대한 통찰력으로 축복받은 인간이지만, 의심하고 추구하는 영혼의 모든 지옥 같은 고문으로 괴로워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본성의 감수성을 지닌 이 남자는 16세기 초, 지금까지 타당했던 견해가 필연적으로 붕괴되는 새로운 시대의 급류를 경험합니다. 그는 신흥 르네상스의 중대한 예술적 업적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작품에서 전통의 결정적인 전개를 선호하기로 결정합니다. [...] 그는 국가와 교회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기계에 휘말렸고, 그의 힘은 이러한 힘의 압력을 견딜 수 없었지만, 그의 그림은 모든 불행, 질병 및 전쟁으로 가득 찬 거친 시대가 그를 어떻게 불안에 몰아넣었는지 생생하게 알려줍니다. 근대의 문턱에서 중세의 경건을 다시 한번 내밀하게 표현하고 [...] 루터교 종교개혁으로 돌아섰을 때 그가 헤쳐 나갔던 번덕과 절망의 심연은 얼마나 측량할 길 없이 깊었을까요. [...] 그의 죽음 [...]은 아마도 세속적인 일의 허무함 앞에서 조용히 체념한 것일 수도 있고, 절망의 충격에 빠져 익사한 것일 수도 있으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은 영혼의 행복과 공포 사이에서 마침내 균형을 찾은 한 남자가 고요하고 평온한 길을 따라 무덤으로 걸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화가 마티스 교향곡은 1934년 3월 12일 푸르트벵글러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초연되었으며, 같은 해 독일과 해외에서 몇 차례 공연되며 호평받았다. 그러나 힌데미트가 나치의 탄압으로 인해 베를린 음대에서 해임되고 스위스로 망명을 가게 되면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들을 수 없었다. 힌데미트는 이 곡에서 ‘네오 바로크’라고 불리는 기존 바로크와 고전주의에 기법에 충실한 전통을 따르는 방식으로 악상을 전개했다. 대위법적 전위, 역행, 소재의 확장에 이르며 선형 다성법을 고수하고 확장된 음조를 사용해 스스로 그저 ‘유구한 전통을 지닌 음악의 계보를 따르는 작곡가’라는 정체성을 강조했다. 어쩌면 ‘네오 바로크’는 역경에 직면해서도 예술적 소명과 성실성을 잃지 않도록 예술가인 스스로를 지켜내고 격려하고자 했던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글 | 김나희(음악평론가)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등 세계 최정상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고, 2022년 제9대 음악감독으로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자가 취임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 정상의 교향악단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말러 <교향곡 제9번>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코로나 시대에도 KBS의 온라인 4채널을 모두 동원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클래식 음악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오픈하며 고품격 음악콘텐츠의 무료 제공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 콘텐츠 허브로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사장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한창록
피에타리 잉키넨

단원

악장 * 부악장 ** 수석 + 부수석 ++

제1바이올린

최병호 ** 반선경* 유신혜** 박강현**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우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제2바이올린

권민지* 임정연** 안지현**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혜 황선민 박서현 최여은 김지민

비올라

진덕* 한넬리**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이유현

첼로

김우진* 윤여훈**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더블베이스

이창형* 김남균** 안수현**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박민재

플루트

김아란* 김태경**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김종아** 윤혜원 조성호

클라리넷

박진오* 손한요** 이승훈**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고주환**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김현준

트럼펫

남관모* 김주원**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이윤호** 윤지언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타악기

Jason Yoder* 장세나 Matthew Ernster 임예지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Yevgenia Pikovskiy-Ratush*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2바이올린 수석)

오보에

이광일**

바순

윤석희**

호른

Jimmy Charitas*

트롬본

Ronald Prussing*

KBSSO-KARTS

제1바이올린

노서균 박가은

제2바이올린

김유진

비올라

김혜민 황주은

첼로

심수연 유세빈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공연지원파트)

팀장 손유리 차장 이한신 김지민 과장 성재은 대리 전현정 사원 손명조 인턴 장수빈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민

공연사업팀

팀장 강길호 대리 이미래 주임 김민중 사원 임상아 서영재 이부윤 인턴 김문정

경영관리팀

팀장 손대승 차장 유정의 유연철 과장 박연선 주임 박태균 사원 정태양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KBS교향악단



www.kbssymphony.org



[@kbssymphonyorchestra](https://www.instagram.com/kbssymphonyorchestra)



[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https://www.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KBS교향악단



[facebook.com/kbssymphony](https://www.facebook.com/kbssymphony)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혹은 'kbssforever')